

효자동엔 '인동장씨'가 있었다

전주역사박물관 '효자동의 유래' 특별전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 선보여
전시는 내일부터 6월 17일까지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 14일 개막하는 '효자동의 유래 인동장씨 이야기' 특별전.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은 집안 대대로 소중한 간직해온 교지와 고문헌, 생활유물 70여 점이다. 이들 자료는 조선 초부터 전주에 오백년 이상 세거한 대표적인 토호집안의 내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씨 일가만이 아니라 지역사적 차원에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인동장씨는 효자동 일원에 세거하면서 유력 집안으로 성장한 전주의 대표적인 토호세력이다. 효자동의 유래가 된 효자동으로 17세기에 장개남이 효자로 정려를 받았고, 19세기에 장영종이 남고산성 별장을 역임했다. 인동장씨는 재력 또한 탄탄했다.

전주 명물 삼천동 곰솔나무(천연기념물 355호)는 인동장씨 선산을 지키던 나무. 1995년에 이 지역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인동장씨들이 묘역을 옮기고 곰솔나무를 전주시에 기증했다.

기증자 장씨 할머니는 19세기 초 남고산성 별장을 지낸 장영종의 후예. 그는 누군

남고산성 별장 장영종 임용교지



가 족보를 가져간다고 말해서 거절했다고 한다. 족보는 산사람처럼 대접해서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가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용기를 맡기면서도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썩는 것이니 관리를 잘해 달라고 누차 당부했다고 한다.

기증유물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영종이 1813년에 받은 남고산성 별장 임용교지. 남고산성은 전주성을 수호하는 산성으로 1812년에 개축됐다. 남고산성별장 교지는 처음 나오는 자료이다.

별장 장영종 불명비는 남고산성에 남아있다. 그는 전주지역의 원로로 남고산성 수축에 참여하여 남고진사적비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인동장씨 집안은 장영종대에 가장 번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쇠그릇, 용기, 도량형 등 인동장씨 생활유물들도 전시된다. 전주에 세거한 집안의 생활용품들로 전주 토호들의 세간살이를 살필 수 있다. 기증한 대부분의 생활용품들은 장씨 할머니의 어머니 때까지도 사용된 것들이다.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은 "조선시대 전주에 세거한 유력한 집안의 내력과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매우 드문 유물들이며, 이 귀중한 유물들을 잘 보존해서 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시는 6월 17일까지. /정해은 기자

15일 달빛하모니합창단 정기연주회

달빛하모니합창단의 제2회 정기연주회가 15일 오후 5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새울빌딩에서 열린다.

지난 2016년 4월 창단한 달빛하모니합창단은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공연은 모차르트의 'Ave verum corpus(거룩한 성체)', 슈베르트의 'An die musik(음악에 불임)' 등 외국합창을 시작으로 김동환 시에 곡을 입힌 '바람은 남풍'과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삽입곡 'I feel pretty(나는 예뻐)'를 잇달아 선보인다.

특별무대에는 베이스 홍석주와 테너 강찬영이 출연해 뮤지컬 맨오브리만차 삽입곡 'The impossible dream(이룰 수 없는 꿈)'과 영화 파파티의 삽입곡 '행복을 주는 사람'을 열창한다.

공연 후반부에선 사계를 합창한다. 봄은 김규환 곡의 '남촌', 여름은 김기영 곡의 '여름', 가을은 양보은 편곡의 '가을밤(월레꽃)', 겨울은 김준범 곡의 '첫눈 오는 날 만나자'를 들려준다. 이어합창곡 'You raise me up(날 일으켜 주시네)', '아름다운 강산', '세시봉 메들리' 등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정해은 기자

우진문화재단 올 창작소리극 사업 선정작 선정

방수미 작 '심청 · 그 이면을 그리다'

우진문화재단 2018 창작소리극 사업 선정작으로 '심청, 그 이면을 그리다' (방수미 작)가 선정됐다.

'심청, 그 이면을 그리다'는 전통 심청가의 효 사상을 삶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현재에 맞게 재창조한 창작판소리 극이다.

왕기석 정음사극악단 예술감독, 류경호 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김선희(우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단)은 "우진문화재단의 창작소리극은 전통판소리의 원형을 근간으로 하되 서사구조와 음악성을 이 시대의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심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전의 선정작들은 젊은 작가와 기획자들의 작품이었던데 비해,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해온 방수미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의 작품을 선정했다"며 "그의 작품은 평생 소리를 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소리꾼들이 자신의 예술인생을 반추하고 판소리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교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진문화재단은 이 작품에 제작지원금 천만을 지급하며, 작품제작에 필요한 공연장과 조명·음향 등 기술지원, 공연홍보물 제작, 공연연습을 위한 연습실 등을 지원한다. 작품은 올 연말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여성새로일센터, 오늘 현장 면접 미니취업박람회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3일 센터에서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 주는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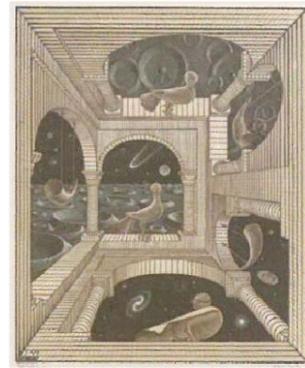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도내 유망기업 및 여성친화기업인 (주)풍년제과, 맘스브레드, (주)엘에프에스 등 6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간접참여기업 20개소는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훈련 해피푸드조리사 양성, 베이커리생산인력 양성과정 수료생뿐만 아니라 도내 구직희망여성을 대

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취업상담사와 1:1 구직상담 및 이력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윤애 센터장은 "미니취업박람회는 기업체와의 현장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 뿐만 아니라 도내 구직희망 여성들에게 구인·구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면접 희망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세계의 세상'



'또다른 세상'

완주에서 '거장'을 만나다

그림의 미술사에서
내일 삼레문화예술촌서

완주군 삼레읍에 위치한 삼레문화예술촌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출신 판화가 에셔의 전시회 '그림의 미술사 : 에셔'가 14일부터 개최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가진 마우리츠 에셔는 네덜란드 유명 판화 작가로 수학, 건축, 철학, 영화, 회화, 디자인, 일러스트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에게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거장들에게도 상상의 원천을 제공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초현실적인 작품, 반복과 순환, 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에셔의 이번 전시회는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레문화예술촌 내 모모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그림의 미술사 : 에셔'전은 평일 오후 2시, 4시에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작품 전시와 함께 에셔의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인 표현을 배워 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연령별 체험 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한다.

삼레문화예술촌을 운영하고 있는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는 "이번 전시가 지역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인 만큼 전시 작품을 통해 다시 한 번 철학적 사고의 시간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철저히 수학적으로 계산된 세밀한 선을 이용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세계를 창조한 초현실주의 작가 에셔전은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성인 95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7000원의 입장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사람과도시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